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 성별간 다집단 분석*

박 지 은 설 경 옥[†] 정 희 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과의 부정적인 관계의 기제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는 좌절되고 이는 곧 자녀가 경험하는 또래관계의 낮은 질로 연결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자녀관계 질과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적응에서 성차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하는 모형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 중학생 1-3학년 508명(남학생 265명, 여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으로 매개모형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다집단 분석으로 성차를 검증한 결과, 남녀 집단에 따른 구조모형의 성차는 없었지만 남녀 청소년의 경로계수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주요어 : 심리적 통제, 기본심리욕구, 또래관계, 청소년, 성차

* 연구비지원을 받아 작성한 논문이 아님.

본 논문은 정희원 2015 석사학위논문에서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koseol@ewha.ac.kr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려는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고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Erikson, 1968; Lerner & Steinberg, 2009). 이 때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발휘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이전 발달단계보다 더 부각되고 안정적인 또래관계는 이후 발달단계에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다(Bergh & Erling, 2005; Nickerson & Nagle, 2005). 청소년기에 또래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또래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발달적 선행요인은 부모-자녀 관계이다(Steinberg, 2001). 부모의 민감하고 안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가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도식을 형성하게 하여 아동 및 청소년기 이들의 안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반면 부적응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안정적인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도 위협하는 요인이다(Gorrese & Ruggieri, 2012). 특별히 부적응적인 양육태도 중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행동적 수단이 아닌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를 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의 또래 관계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양육방식이다(Barber & Harmon, 2002).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 중에서 주 양육자로 주로 부각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과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을 밝히고, 어머니-자녀관계의 질과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적응에서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언어, 감정표현을 통제하고 애정을 철회한다고 위협하는 등 심리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부모의 방식대로 조정하려는 역기능적인 양육방식의 한 형태이다(Barber & Harmon, 2002).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무시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녀의 사고, 감정과 자기표현 과정에 과도한 간섭과 비난을 가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부모-자녀 간에 적절한 심리적 경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Baumrind, 1965; Hauser, 1991).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 준수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행동적으로는 엄격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지지적인 양육방식인 행동통제와 구분된다. 행동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기능과 정적 상관성이 있지만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또래관계의 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이다(Barber, Stolz, Olsen, Collins, & Burchinal, 2005).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내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기능에도 부정적이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자녀의 외로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으며(안명희, 2014) 대인관계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부모는 물론 또래에게도 정서적 거리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리, 김희정,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이 또래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상대

를 조정하고 애정 철회를 위협하는 방식의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한나, 이승연, 2015). 비록 종단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아직 없지만, 발달단계별 횡단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초기까지 또래관계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정도가 심할수록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은 교사 및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장경문, 2011) 대학생 자녀 역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정도가 심할수록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기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도 더 높게 나타났다(마은애, 손은정, 2014). 이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발달단계 전반에 걸쳐 자녀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이다. 특별히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동시에 자율성의 욕구가 증대되며 정체성 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는 그 어느 발달단계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가 중요하리라 예상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애착이론(Bowlby, 1980)과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으로 설명가능하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는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내적 작동 모형으로서 작용하는데(Ainsworth, 1989) 생애 초기에 형성된 관계에 대한 도식은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나 이성관계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인지적 도식이 된다(Allen &

Land, 1999).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는 불안정 애착의 표상이 또래관계로 이전되어 나타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Bowlby, 1980; Doyle & Markiewicz, 2005).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방식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사회적 행동을 학습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모형을 제공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다(Bornstein,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자녀는 또래관계에서도 상대를 심리적으로 통제 및 조종하려 하여 또래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Nelson & Crick, 2002; Nelson, Hart, Yang, Olsen, & Jin, 2006). 심리적 통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여 연구한 경우에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만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었다(장경문, 2011; 전해련, 이지연, 2014; 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그렇다면 어떠한 기제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인 것인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우울, 불안과 같은 개인내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기제에 대한 연구는 더러 있으나(안명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

적이다. 국외논문으로는 관계적 공격성과 같은 행동변인을 매개변인으로 밝힌 연구가 유일하다(Soenens, Vansteenkiste, Goossens, Duriez, & Niemiec, 2008). 구체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부적 관련성이 없었으나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심리적 통제가 아닌 거부, 통제, 과보호, 방임과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전반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자존감 등 개인 내적인 심리변인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김현주, 홍상향, 2015; 임희진, 진미경, 2014; 임연정, 진미경, 2015; 이귀숙, 정현희, 2006; 장인실, 장석진,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에 관한 매개변인 연구는 한편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 증가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전혜련, 이지연, 2014). 비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질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2002)에 근거해 또래집단에서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을 매개변인으로 제시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의 심리적인 성장, 통합, 안녕감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심리내적 욕구로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인 자율성, 환경과 효과적

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충족되는 유능성,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인 관계성에 대한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결정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가정한다(Deci & Ryan, 2000).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결정성동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권미나, 이진숙, 2015; Deci & Ryan, 2000). 하지만 심리적 통제 양육방법은 자녀의 요구나 필요는 무시한 채 자녀에게 부모의 뜻에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통제적이고 비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방식으로 자녀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성 동기를 억제한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자녀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려는 자율성 욕구와 자신이 맡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유능성 욕구가 좌절되고, 부모와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연결감이 약화되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에 관한 중단연구에서는 13세에 인식한 심리적 통제가 16세에 어머니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한 부정적 양육이 이후 이들의 자율성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Hare, Szewedo, Schad, & Allen, 2015).

국내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기

본심리욕구 좌절이 청소년의 낮은 자기 주도적 학업능력과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지만(이희선, 권영애, 2012; 한송이, 장석진, 2015) 또래관계 질에 주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다. 비록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적응을 직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한 국내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또래관계 적응이 측정방향으로 포함된 전반적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아영, 이명희, 2008). 어머니-자녀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은애, 손은정(2014)의 논문이 유일한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 욕구가 좌절되고 어머니가 부과한 기준에 도달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실패에 대해 가혹한 자기비난을 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져 더 많은 우울 증상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서 어머니-자녀 간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하였다.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방식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Brown, & Bakken, 2011). 양육행동과 행동문제에 관한 성차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비행 문제와 더 관련이 있었고, 우울, 불안 등 내재화 행동문제와 더 강한 관련이 있었다(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Rogers et al., 2003). 또한 학령전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아의 관계적 공격

성과 관련이 있었던데 반해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없었다(Casas et al., 2006). 하지만 양육의 질과 관련이 있는 어머니-자녀 애착관계와 또래관계에 관한 성차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기 어머니-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여아보다 남아의 또래관계 질과 더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2003).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에서 성차는 발견되었으나 그 방향성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는 성차에 대한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가능한데, 초기 청소년기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친밀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부모나 또래관계에서 스트레스나 갈등을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Barber, 1996; Rose & Rudolph, 2006)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여자 청소년의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문제와 더 부정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자 청소년은 관계 지향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신뢰를 중시하고 또래관계 질을 높이는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 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이러한 사회화 하는 과정이 덜 강조되어(Ryan, La Guardia, Solky-Butzel, Chirkov, & Kim, 2005)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문제와 더 부정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서 성차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만족, 또래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의해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검증했다. 구체적인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어머니-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완전매개할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침해하는 위협요인이 되고(Barber et al., 2005).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Soenens et al., 2008)를 바탕으로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 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전혜련, 이지연, 2014)를 바탕으로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부분매개하는 경쟁모형을 비교검증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기본심리욕구 만족, 또래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조절되어 관련성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곳의 중학교 1, 2, 3학년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총 526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여 총 508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만 13.97세($SD=.82$)이고, 성별은 남학생 265명(52.2%), 여학생 243명(47.8%)으로 구성되어있다. 1학년 176명(34.6%), 2학년 170명(33.5%), 3학년 162명(31.9%)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동거여부는 부모님과 동거 465명(91.5%), 어머니와만 동거 30명(5.9%), 아버지와만 동거 12명(2.4%),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음 1명(0.2%), 기타 1명(0.2%)이었다. 어머니의 평균연령 45.15세($SD=3.2$)였고, 어머니의 결혼상

태는 결혼 470명(92.5%), 이혼 22명(4.3%), 별거 11명(2.2%), 재혼 2명(0.4%), 사별 3명(0.6%)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 110명(21.7%), 전문대졸업 30명(5.9%), 대학교졸업 317명(62.4%), 대학원졸업 39명(7.7%), 기타(모름) 12명(2.4%)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 245명(48.2%), 단순노무직 4명(0.8%), 사무직 72명(14.2%), 판매서비스직 82명(16.1%), 전문직 58명(11.4%), 고위관리직 5명(1.0%), 예술직 7명(1.4%), 기타 35명(6.9%)이었다.

측정도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게 위해 Barber(1996), Silk Morris, Kanaya와 Steinberg(2003)가 개발하고 Wang, Pomerantz와 Chen(2007)이 18문항으로 구성된 심리적 통제척도를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2015)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행동(예: 우리 엄마는 내가 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잘못된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다)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심리적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한 최대우도법과 보다 객관적인 요인수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Tataryn, & Gorsuch, 1996)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대상에도 단일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하여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문항꾸러미를 제작

(item parceling)하여 세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심리적 통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고, 심리적 통제1, 2, 3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 .72, .73이었다.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한소영, 신희천(200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예: 어머니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 유능성(예: 어머니와 있을 때 무엇이든 잘 할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진다.), 관계성(예: 어머니와 있을 때 가깝고 친밀하다고 느낀다.) 욕구 만족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식 7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자녀관계에서 자녀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결과와 동일하게 3요인 모형이 적절한 적합도로 나타났다($\chi^2 = 574.888$, 자유도(df)=132, TLI=.937, CFI=.946, RMSEA=.081(90% 신뢰구간=.075-.088)). 본 연구에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율성 .90, 유능성 .96, 관계성 .92였다.

또래관계 질

자녀의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하고 옥정(1998)이 변안한 또래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상호신뢰 10문항, 의사소통의 질 8문항, 소외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결코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하위요인인 상호신뢰, 의사소통의 질을 사용하였고,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한 최대우도법과 보다 객관적인 요인수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et al., 1996)을 실시한 결과 단일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문항 꾸러미를 제작(item parceling)하여 3요인으로 구성하였다(Russell et al., 1998). 또래관계 질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고, 또래관계 질 1, 2, 3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 .83, .84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주요 변인의 정규성 검토,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연구모형을 검증을 실시하였다.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와 Sheets(2002)의 two-step 매개검증에서 (a) 매개변인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b)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매개변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매개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구조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

였다. 1단계는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2단계는 구조모형을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또래관계 질에 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Sobel, 1982)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상대적 지수인 TLI, CFI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기준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TLI, CFI가 .90 이상(Bentler, 1990)이고, RMSEA가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

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표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 N=265, 여 N=243)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1. 심리적 통제	1	.90**	.92**	.90**	-.34**	-.40**	-.27**	-.28**	-.04	-.03	-.04	-.05
1-1. 심리적 통제 1	.90**	1	.76**	.72**	-.35**	-.42**	-.27**	-.29**	-.09	-.08	-.09	-.09
1-2. 심리적 통제 2	.93**	.78**	1	.73**	-.31**	-.35**	-.23**	-.27**	-.03	-.01	-.01	-.05
1-3. 심리적 통제 3	.92**	.75**	.77**	1	-.33**	-.37**	-.28**	-.26**	-.01	-.01	-.00	-.01
2. 기본심리욕구	-.31**	-.34**	-.28**	-.30**	1	.92**	.92**	.91**	.16*	.13*	.16*	.15*
2-1. 자율성	-.41**	-.43**	-.36**	-.39**	.88**	1	.75**	.78**	.13*	.10	.15*	.12
2-2. 유능성	-.17**	-.20**	-.15*	-.19**	.91**	.68**	1	.73**	.12	.10	.11	.11
2-3. 관계성	-.25**	-.28**	-.24**	-.25**	.91**	.71**	.76**	1	.18**	.16*	.18**	.17**
3. 또래관계 질	-.03	-.04	-.03	-.04	.38**	.34**	.29**	.39**	1	.92**	.95**	.94**
3-1. 또래관계 질 1	-.03	-.05	-.02	-.04	.35**	.34**	.24**	.37**	.93**	1	.81**	.77**
3-2. 또래관계 질 2	-.02	-.01	-.03	-.03	.35**	.32**	.28**	.35**	.95**	.82**	1	.85**
3-3. 또래관계 질 3	-.03	-.05	-.03	-.04	.36**	.30**	.29**	.38**	.94**	.80**	.86**	1
평균	2.76	2.74	2.67	2.75	4.81	4.88	4.46	5.08	3.56	3.56	3.50	3.61
표준편차	.68	.80	.73	.76	1.13	1.20	1.33	1.21	.73	.74	.78	.79
왜도	.14	.22	.14	.17	-.19	-.44	.03	-.31	-.56	-.45	-.46	-.60
첨도	-.22	-.15	-.29	-.36	-.10	.15	-.34	-.24	.21	.06	.14	.19

주. * $p < .05$, ** $p < .01$, 대각선 아래 남자 청소년, 대각선 위 여자 청소년

남녀 모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남 $r=-.31, p<.01$, 여 $r=-.34, p<.01$)이 있었고 또래관계 질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또래관계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남 $r=.38, p<.01$, 여 $r=.16, p<.05$)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통제($t=2.62, p<.01$)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t=-2.72, p<.01$)과 또래관계 질($t=-5.57, p<.001$)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t=-3.19, p<.01$), 관계성($t=-4.10, p<.001$)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능성은 성차가 없었다.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에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심리적 통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 그리고 또래관계 질에 관한 측정모형 검증 결과 TLI는 .978, CFI는 .985, 그리고 RMSEA는 .064(90% 신뢰구간=.047-.081)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먼저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는 75.501, 자유도(df)는 25, TLI는 .978, CFI는 .985, RMSEA는 .063(90% 신뢰구간=.047-.080)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부분매개하는 경쟁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는 73.509, 자유도(df)는 24, TLI는 .978, CFI는 .985, RMSEA는 .064(90% 신뢰구간=.047-.081)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 결과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도가 높은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 ($\Delta\chi^2=(1, N=508)=1.992, p<.25$).

최종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그림 1). 구체적으로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40(p<.001)$,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또래관계 질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3(p<.001)$ 이었다. Sobel 검증을 통해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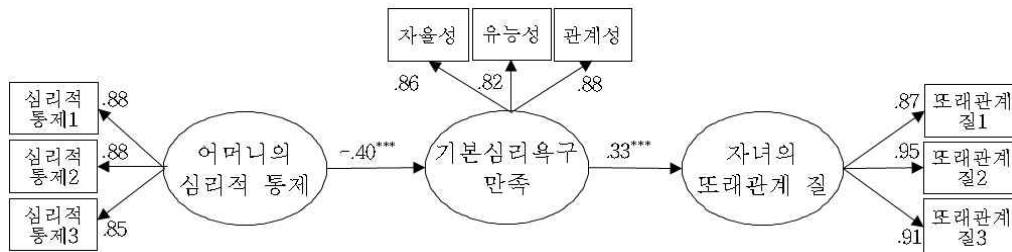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구조모형
주. ***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z=-5.27, p<.001$).

남녀집단에서의 연구모형 적합도 비교

남녀청소년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만족, 또래관계 질의 관계가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특정 경로에서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잠재변인에 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된 결과, TLI는 .983, CFI는 .986, RMSEA는 .039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남녀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2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2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Delta\chi^2(2, N=508)=7.989, \Delta TLI=-.002, \Delta CFI=-.001, \Delta RMSEA=-.002$) 이는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별에 따른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그림 2)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만족 간의 관계는 남자 청소년이 $-.35(p<.001)$, 여자 청소년이 $-.42(p<.001)$ 로 남

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는 남자 청소년은 $.41(p<.001)$, 여자 청소년이 $.18(p<.001)$ 으로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Delta\chi^2(1, N=508)=7.099, p<.01$).

논 의

본 연구는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고 자아 정체성의 탐색이 시작되는 초기 청소년기에 부적응적 양육방식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은 이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좌절시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어머니-자녀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고 자녀의 또래관계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가 성 사회화(Fagot, Rodgers, & Leinbach, 2000)이론에 의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전체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연구가설대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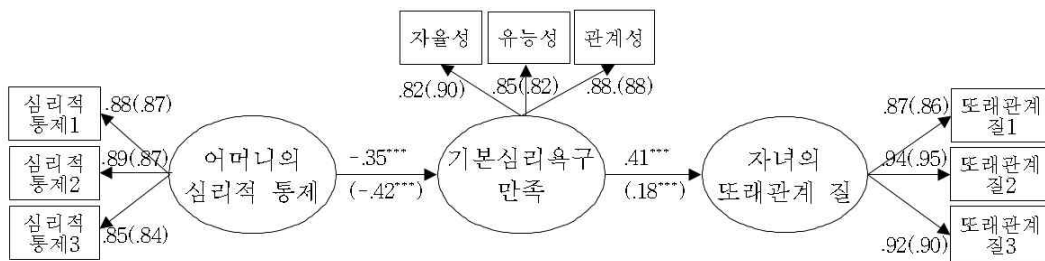


그림 2.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주.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남자 청소년(괄호 속은 여자 청소년)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부적 관계를 기본심리욕구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 검증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또래관계 질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가 애정 철회와 죄책감 유발로 어머니-자녀 간 유대관계를 조정하거나 실망감과 수치심을 표현하고 강한 소유욕과 과잉보호로 과도한 통제를 하려는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을 더 많이 보일수록 이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유능감, 소속감 그리고 자율성과 같은 기본심리욕구는 더욱 좌절되었고, 어머니-자녀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통제가 어머니-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발달과 유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안명희, 2014; 마은애, 손은정, 2014). 또한 청소년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부정적 또래관계로 이어져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아영, 이명희, 2008).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자녀는 신뢰롭고 만족스런 또래관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인간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심리욕구를 좌절시키고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방해하는 위

협요인이다(Barber et al., 2005).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는 자녀가 부모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하여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성과 통제감을 가지고 선택하는 자율성 욕구를 침해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적인 어조로 죄책감을 유발하여 자녀 자신의 수행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적이라는 유능감 욕구를 침해하고, 부모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수용하거나 거부하여 부모-자녀관계에서 무조건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결감을 가지려는 관계성 욕구를 침해한다(Rohner, Khaleque, & Cournoyer, 2004;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자녀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충족시킬 수 있는 내재적 동기가 삶을 이끄는 주요 동기가 되기보다 어머니의 기대를 알아차리고 충족시키려는 외재적 동기가 삶의 주요 동기가 된다. 또래관계에서도 능동적으로 만족스런 또래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수동적이고 반응적으로 또래와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또래관계를 통해 만족을 경험하기보다 또래관계가 어려운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Deci & Ryan, 2000; Hodgins, Koestner, & Duncan, 1996).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을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완전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 질과 관련성이 없고 관계적 공격성을 완전매개로 또래관계 질을 설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Soenens et al., 2008). 하지만 후기 아동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 아동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직접 예측하기도 했고,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부분매개로 하여 예측하기도 하였다(전혜련, 이지연, 201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간접효과만이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특성상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기로(Steinberg, 1990)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갖기보다 이 시기 중요한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과 같은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통해 또래관계의 질에 부정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성차 분석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에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의 완전매개 모형은 성별에 따라 같았으나 변인 간 관계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에서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기본심리욕구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인식할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자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관계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첫째, 부모-자녀관계에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신뢰와 친밀한 의사소통 등 관계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 되어(Ryan et al., 200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해도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행

동으로 또래관계 질을 높일 수 있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 지향적인 행동을 사회화 하는 과정이 덜 강조되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지 못했을 경우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경험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 보다 또래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더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과는 달리 부모 지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관계 지향적인 행동을 사회화 하는데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Tuggle, Kerpelman, & Pittman, 2014). 둘째,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외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또래관계에서도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또래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수동적이고 내재적 동기가 저하되었을 경우 여자 청소년 보다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Deci & Ryan, 2000).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최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 뿐 아니라 이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차를 검증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이 아닌 이성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은 관계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시 말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이 있는 관계적 영역

은 이성관계인데 반해 남자 청소년은 이성관계 뿐 아니라 또래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 보다 남자 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더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관계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Tuggle et al., 2014).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내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이 정체성 확립과 자율성 발달이 중요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위협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청소년기는 안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많은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다(Barber & Harmon, 2002). 초기 청소년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이후의 발달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Hare et al., 2015) 심리사회적 발달의 장애가 되는 청소년기 또래관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후기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성이 클 수 있다(Soucy & Larose, 2000). 따라서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이 중요한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질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어머니-자녀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통제는 동서양 문화에서 모두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이지만 서양 부모들보다 동양 부모들에게 더 빈번히 보고되는 만큼

(Wang et al., 2007) 국내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자기결정성 동기를 억제하여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기제를 밝힌 의의가 있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사회화 이론에 따라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자녀관계의 질이 여아보다 남아의 또래관계 질과 더 강한 관련이 있었던 선행연구(Coleman, 2003)와 일치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주는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어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의 성차를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상담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상담에서 또래관계 문제는 점차 증가하여 학업관련 문제보다 더 빈번하게 호소하는 문제이다(여성가족부, 2015). 본 연구결과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내담자들의 상담개입시 어머니-자녀관계의 질을 탐색하는데 있어 특별히 청소년 내담자들의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의 기본적 욕구가 좌절되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상담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하는 개

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에서 청소년이 주체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행동을 경험하고, 상담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효능감과 연결감을 경험하여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상담에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치료적 동기에도 영향을 주어 또래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yan, Lynch, Vansteenkiste, & Decy, 2010). 또한 상담자와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한 경험은 또래관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 또래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Ryan et al., 2010). 둘째, 자기결정성 이론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청소년이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부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하는 이유로 내재적 동기의 저하를 제시하고 있다(Deci & Ryan, 2000; Hodgins et al., 1996). 상담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유능성 저하, 자율감 그리고 연결감의 상실이 청소년 내담자의 또래관계에서 내재적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재적 동기가 낮은 청소년 내담자들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신의 기본심리욕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데 불안함을 느끼고 더 수동적으로 또래들을 대하여 또래관계에서 즐거움과 친밀함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다(Ryan, 1991). 또한 외재적 동기를 가지고 또래관계에서 상대를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고 또래관계에서 거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Ojanen, Stratman, Card, & Little, 2013). 상담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청소년 자녀의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어 가지게 된 동기들을 파악하고 또래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수준을 높이고 외재적 동기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입할 수 있다(Frey, Nolen, Van

Schoiack Edstrom, & Hirschstein, 2005). 셋째,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문제가 남자청소년에게 더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여자 청소년은 부모, 교사, 또래집단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관계지향적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지만 남자 청소년은 부모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또래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가 여자 청소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를 만족하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관계 질을 높이는 대인관계 기술을 모델링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직접적인 상관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을 가정하지 않는 MacKinnon 등(2002)의 2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고,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부정적인 또래관계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한 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관한 연구모형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전이를 설명하는 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뿐

만 아니라 이성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혀 학술적 가치와 실무에 함의가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기본심리욕구 만족, 자녀의 또래관계 질 간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살펴본 결과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변인이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로 자녀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기 청소년기의 자율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Hare et al., 2015)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이후 발달단계에도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래관계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여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주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연구하였다(Pettit et al., 2001). 하지만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상호작용 방식이 나타날 수 있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누적되거나 추가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Steinberg, 2001). 구체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각각 측정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문제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아

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남녀 자녀 모두의 내재적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었다(Rogers, et al., 2003). 또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에 관한 성차연구에서는 중기 아동기 어머니-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여아보다 남아의 또래관계 질과 더 강한 상관이 있었고 아버지-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남아의 또래관계 질에서만 관련이 있었다(Coleman, 2003).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따로 구분하여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또래관계 질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미나, 이진숙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행복감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19(4), 589-610.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 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김유리, 김희정 (2013). 부모의 심리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단절의 관계. *상담학연구*, 14(5), 3041-3064.

김현주,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마은애, 손은정 (2014). 어머니의 심리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2035-2051.

-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09-131.
- 안명희 (2014).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37-760.
- 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
- 육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정, 진미경 (2015). 아동이 지각한 부, 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18(4), 348-367.
- 임희진, 진미경 (2014). 아동이 지각한 부, 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7(4), 419-438.
- 이귀숙, 정현희 (2006). 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유능감,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관계가 학령초기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575-593.
- 이희선, 권영애 (201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자기결정성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50(8), 125-135.
- 장경문 (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243-261.
- 장인실, 장석진 (201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291-313.
- 전혜련, 이지연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2), 5-18.
- 한나, 이승연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가족 삼각화와 불인정 기반 자기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81-203.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한송이, 장석진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459-47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176.
-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19-335). New York: Guilford Pres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tolz, H. E., Olsen, J. A., Collins, W. A., & Burchinal, M.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47.
- Baumrind, D. (1965). Parental control and parental love. *Children*, 12(6), 230-234.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rgh, S., & Erling, A. (2005).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 Swedish study of identity status using the EOM-EIS-II. *Adolescence*, 40(158), 377-396.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Vol. 3.). New York: Basic Books.
- Bornstein, M. H. (2002). Parenting infa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2nd ed., pp. 3-4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own, B. B., & Bakken, J. P. (2011). Parenting and peer relationships: Reinvigorating research on family-peer linkages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153-165.
- Casa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J. M., Woods, K. E., Yeh, E. A. J., & Huddleston-Casas, C. A.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home contex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209-227.
- Coleman, P. K. (2003). Perceptions of parent child attachment, social self 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2(4), 351-368.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 3-33). Rochester, NY: Universityof Rochester Press.
- Doyle, A. B., & Markiewicz, D. (2005). Parenting, marital conflict and adjustment from early-to

- mid-adolescence: Mediated by adolescent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2), 97-110.
- Erikson, E. H. (1968). *Identity*. New York: Norton.
- Fagot, B. I., Rodgers, C. S., & Leinbach, M. D. (2000). Theories of gender socialization. In T. Eckes, & H. M. Trautner, (Eds.), *The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gender* (pp. 65-89). Mahwah, NJ: Erlbaum.
- Frey, K. S., Nolen, S. B., Van Schoiack Edstrom, L., & Hirschstein, M. K. (2005). Effects of a school-based social-emotional competence program: Linking children's goals, attribu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171-200.
- Correse, A., & Ruggieri, R. (2012). Peer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with parent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5), 650-672.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macmillan*. New York, 47-82.
- Hare, A. L., Szewdo, D. E., Schad, M. M., & Allen, J. P. (2015). Undermining adolescent autonomy with parents and peers: The enduring implications of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5(4), 739-752.
- Hauser, S. T. (1991). *Families and their adolescents*. New York: Free.
- Hodgins, H. S., Koestner, R., & Duncan, N. (1996). On the compatibility of autonomy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27-237.
- Lerner, R. M., & Steinberg, L. (2009).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Volume 1: Individual bases of adolescent development* (Vol. 1). New York: John Wiley & Sons.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1), 83-104.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elson, D. A., Hart, C. H., Yang, C., Olsen, J. A., & Jin, S. (2006). Aversive parenting in China: Associations with chil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7(3), 554-572.
- Nickerson, A. B., & Nagle, R. J. (2005).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2), 223-249.
- Ojanen, T., Stratman, A., Card, N. A., & Little, T. D. (2013). Motivation and perceived control in early adolescent friendships relations with self-, friend-, and peer-reported adjustmen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3(4), 552-577.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 Rohner, R. P., Khaleque, A., & Cournoyer, D. E. (2004). Cross-national perspectives on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arriage & family review*, 35(3-4), 85-105.
- Rose, A. J., & Rudolph, K. D. (2006).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hip processes: potential trade-offs for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of girls and boy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98-13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Ryan, R. M. (1991). The nature of the self in autonomy and relatedness.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224-225). New York: Springer-Verlag.
- Ryan, R. M., La Guardia, J. G., Solky-Butzel, J., Chirkov, V., & Kim, Y. (2005). On the interpersonal regulation of emotions emotional reliance across gender, relationships and cultures. *Personal relationships*, 12(1), 145-163.
- Ryan, R. M., Lynch, M. F., Vansteenkiste, M., & Deci, E. L. (2010). Motivation and autonomy in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d: A look at theory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Online first*, 1-68.
- Silk, J. S., Morris, A. S., Kanaya, T., & Steinberg, L. (2003).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granting: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or distinct constru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113-128.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 Soenens, B., Vansteenkiste, M., Goossens, L., Duriez, B., & Niemiec, C. P. (2008). The intervening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friendship quality. *Social development*, 17(3), 661-681.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 Soucy, N., & Larose, S. (2000). Attachment and control in family and mentoring contexts as determinants of adolescent adjustment at colle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125-143.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 Tuggle, F. J., Kerpelman, J. L., & Pittman, J. F.

- (2014).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Dating Partners. *Family Relations*, 63(4), 496-512.
- Wang, Q., Pomerantz, E. M., & Chen, H. (2007).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78(5), 1592-1610.
- Wood, J. M., Tataryn, D. J., & Gorsuch, R. L. (1996). Effects of under-and overextraction on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Psychological methods*, 1(4), 354-365.
- 1차원고접수 : 2016.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6. 08. 23.
최종게재결정 : 2016. 08. 30.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ling and Adolescent Peer Relationships: Examining the Role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Gender

Ji Eun Park

Kyoung Ok Seol

Hee Won Jeo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in early adolescence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hypothesis is that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The hypothesis was tested among 508 adolescents from grades 1-3 in middle school (males: 265, females: 243). The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We further analyzed gender differences i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When we performed a multi-group analysis of this structural model, we confirmed that the model of the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a mediator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held true for both boys and girls. However, differences in the path coefficients for boys and girls indicat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was stronger among boys.

Key words : *psychological control, basic psychological needs, peer relationship, adolescent, gender difference*